



유혜련 상무

Audit Group 2

02-6676-3222

hyelyoo@deloitte.com

2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재무회계 상식



스타트업들에게 회계란 외계어다?

최근에 O2O(Online to Offline) 스타트업인 압(YAP)이 홍콩 및 중화권 거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뉴월드 그룹으로부터 220억 원, 국내 투자자로부터 200억 원, 총 4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화제가 되었다. 압은 위치기반 근거리통신기술인 ‘비콘(Beacon)’을 활용해 편의점이나 커피숍, 레스토랑 등 압 가맹점에 들어온 고객에게만 각종 할인쿠폰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4년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주목 받는 스타트업 중 하나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분야, 유통·서비스, 문화 콘텐츠, 게임 분야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고, 사업 성장과 확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원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개인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회계나 세무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역력이 없는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이 이해하기에 회계는 또 다른 언어라고 볼릴 만큼 어렵다. 그러나 압과 같이 펀딩이 들어온 이후의 단계에 도달하거나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회계 활동은 아주 중요한 내부 활동이 된다. 올해 초에 알게 된 6년째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지인이, 내 직업이 회계사라고 소개하자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 “회계가 왜 필요한 것이냐”였을 정도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스타트업들을 위해 회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꼭 필요한 회계의 기본 상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본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회계는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회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딱 보인다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재무회계 상식

만약에 예비투자자가 ‘2년 후 자기자본이익률 10%를 달성하라’, 또는 ‘2년 후 유동비율 150% 이상을 달성하라’ 라고 할 때, 회사는 회사의 어떤 수치를 개선해야 하는지, 혹은 그것이 과연 달성 가능한 상황인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먼저, 회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힌 이익구성 항목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수익 구조 및 재무 구조를 파악한 뒤,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해야 한다.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는 고급 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자.

회사의 모든 활동을 수치로 기록하는 활동이 회계이기 때문에 재무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 회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계를 통해 달성되는 재무보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는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및 재무제표 구성 항목과 자본 및 자본유지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무보고의 목적

일반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금융권과 같은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주식 투자나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잠재적 투자자는 기업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이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고, 배당 또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가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잠재적 투자자가 아닌 내부 이용이 목적이라면 재무보고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는 잠재적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목적 적합성

목적에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잠재적 투자자의 많은 의사결정은 기업의 수익 규모와 실현 시기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내려진다. 기업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정보이용자가 새로운 예측을 하거나, 혹은 정보가 기존 예측을 확인 또는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목적 적합성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다.

2.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3. 충실한 표현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하고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는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성의 세 가지 특성을 갖춰야 한다.

4. 비교 가능성·검증 가능성·적시성 및 이해 가능성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 투자 자산을 매도할지 또는 보유할지,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의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는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입 요소(수량과 원가)를 확인하고 같은 원가흐름의 가정(예: 선입선출법)을 사용해 기말 재고자산을 재계산해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원가 정보는 검증이 가능하다.
-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게 된다.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정보이용자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

기업의 재무보고서인 재무제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 기준(회계 용어로 회계연도 말이라고 표현하며 12월 말 법인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재무 상태를 나타냄
- **포괄손익계산서:** 1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 및 이익을 통한 기업의 성과를 나타냄
- **자본변동표:** 1년 동안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용을 나타냄
- **현금흐름표:** 1년 동안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현금흐름을 나타냄

재무제표 구성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 매출채권, 선급비용, 투자주식, 재고자산, 유형자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이 대표적인 자산의 형태이다.



부채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했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채무가 발생하며(선급 또는 인도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기업이 고객의 연간 매입액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환불액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고객에 대한 과거의 매출이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된다.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선수금, 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대표적인 부채의 형태이다.



자본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이다.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



수익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기업의 주된 매출활동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투자나 투자한 금융상품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수익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비용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 지분 참여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기업의 주된 매출활동을 위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재고자산의 원가, 매출활동을 위해 투입한 인건비, 판매활동을 위한 판매직원의 인건비 등 판매비, 관리활동을 위한 관리비용, 차입금의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및 법인세 비용 등을 비용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재무제표 구성 항목의 인식

재무제표 구성 항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증감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 판매대금을 며칠 이후에 받기로 하고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했는데, 그사이 해당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면 외상매출금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사라진 것으로 간주해 기업은 채권을 더 이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만큼의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은 신뢰성 있고 측정 가능한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송으로부터 예상되는 배상금이 자산과 수익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을 위한 발생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자본 및 자본유지 개념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의 재무적 개념에 기초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자본을 조업 능력으로 보는 실물적 개념하에서는 자본은 예를 들어, 1일 생산수량과 같은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간주된다.

회계 지식 포인트 열 가지만 기억하자!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를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로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일은 회계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정보는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재무정보 작성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알아야 할 회계 지식 포인트 열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 | | |
|---|--|
| 1 | <p>수익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계상한다</p> <p>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고 구성 항목 인식 조건에서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매출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향후 받을 현금을 매출채권으로 인식해야 한다.</p> |
| 2 | <p>비용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계상한다</p> <p>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시점에서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인건비를 일시적인 현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급하기로 한 월급날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비용을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현금유출 시점과 상관없이 차입금 사용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기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p> |

3	<p>미래의 약속 또는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수익이나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p> <p>거래업체와 1년 동안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바로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 예정 수량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물품이 납품된 후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납품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자금을 차입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바로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차입액을 수령했을 때 부채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본다.</p>
4	<p>자산 혹은 비용으로 선택 가능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p> <p>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라고 앞서 언급했다.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는 보통 그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업무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금액이 소액(개발 건당 100만 원 미만)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나, 금액이 크다면 우선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예상되는 사용 기간 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 발생한 인건비, 시제품비 등의 개발비용도 개발 결과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p>
5	<p>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한다</p> <p>내용연수는 자산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한다. 사용 기간 동안 자산의 사용(감액)분을 구간별로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p>
6	<p>기업환경의 변화로 자산성이 없게 된 자산은 비용으로 추가 계상해야 한다</p> <p>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은 경제적 효익이 이미 발생했거나 미래 발생시킬 것이라고 보아 자산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기업환경의 변화나 거래처의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산가액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해 손상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회수 불가능한 채권가액을 대손상각비로, 생산하는 제품의 급격한 진부화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사용가치보다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추정해 손상차손으로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p>
7	<p>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한다</p> <p>예를 들어, 1심이 패소된 소송사건인 경우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미리 계상해야 한다. 또한 차입금 관련한 지급보증기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한다.</p>
8	<p>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부채와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한다</p> <p>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및 부채를 유동 자산·부채로 구별하고 그 외의 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부채로 구별해 표시한다.</p>
9	<p>자본금 증감의 내용은 비용 또는 수익이 아니다</p> <p>유상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감자로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와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손익은 비용 또는 수익활동이 아니고 자본에서 직접 조정되는 항목이다.</p>
10	<p>세무와 회계는 다르다</p> <p>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그 시점에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나서 대금 회수의 권리가 생기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았다고 그 시점에 매입으로 인식할 수 없다. 회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p>